

성동조선, 정유운반선 6000억원 수주

성동조선해양(대표 김연신)이 정유 운반선 탱커 12척을 수주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싱가포르 Narvik의 11만5000톤 탱커 8척과 그리스 Horizon Tanker의 5만톤 탱커 4척을 수주했다고 8월29일 발표했다.

사업비는 6000억원에 달하며 건조된 선박들은 2015년과 2016년에 차례로 인도한다.

성동조선해양은 8월23일에도 한진해운과 SK해운으로부터 15만DWT 벌크선 2척을 수주하는 등 2013년에만 총 13억달러에 해당하는 30척을 수주했다.

<화학저널 2013/08/29>